



노동개악, 노조탄압에 맞선 투쟁의 상징

갑을오토텍 투쟁을 엄호하자

갑을오토텍 동지들이 악랄한 노조파괴 시도에 맞서 보름 넘게 공장을 사수하고 있다. 정부와 사측이 경찰·용역을 대거 배치하고, 보수 언론이 '고임금 귀족'이라고 비난하고, 한여름 폭염이 온몸을 녹이는데도, 이들은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공장을 사수하겠다"며 결의에 차 있다.

갑을오토텍 투쟁은 단지 한 사업장만의 쟁의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노동개악과 노조 탄압에 맞선 상징이 됐고, 박근혜 정부에 맞선 주요 전장이 됐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 쥐어짜기가 중요한 정부로서는 갑을오토텍 투쟁을 작살내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는 결코 강력하지 않다. 갑을오토텍 직장폐쇄와 불법적 용역 배치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거세다.

실질적 연대를 건설해 정부가 함부로 경찰력 투입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갑을오토텍 투쟁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군 민들이 수십일째 투쟁하고 있고, 이화여대 학생들이 권위적인 학교당국에 맞서 점거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점거파업을 하고 있다.

이 투쟁들은 지금 서로 별개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누적돼 온 불만과 저항이 박근혜 정부의 정치 위기를 비집고 올라오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4월 총선 참패 이후 집권여당의 분열이 심화했다. 친이(MB)계의 대우조선 비리 연루가 폭로되고, 박근혜의 최측근 우병우 스캔들이 터졌다. 저들의 분열은 지금처럼 가다가는 정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범여권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박근혜에게 총선 참패를 안기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지난해 총파업과 총궐기에 나선 조직 노동자들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노동자 투쟁은 한국사회의 핵심 이슈다. 휴가 이후 노동쟁의

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와 기업주들이 경제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려고 임금 삭감, 인력 감축, 외주화, 민영화, 노조 탄압 등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호하게 공장을 사수하며 저항의 상징이 된 갑을오토텍 투쟁의 성패는 하반기 투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이 전선에서 승기를 잡는 것이 모든 노동자 부문에 이롭고 중요하다.

갑을오토텍 투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노동운동은 지금 여기 달려들어 우리 모두의 문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갑을오토텍의 투쟁을 지켜야 한다.

점거는 강력한 무기이지만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금속노조의 연대가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정치 위기에 빠져 있고 경제 위기 속에서 광범한 불만이 퍼져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연대를 확산한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기아차지부가 실질적 연대에 나서자

금속노조의 연대파업이 조직돼야 한다

현대·기아차 사측은 갑을오토텍 직장폐쇄를 앞두고 다른 부품사들로 생산을 이원화 했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피하려고 야비한 꼼수를 쓴 것이다. 따라서 한온시스템 등 동종 업계의 부품사 노동자들이 대체생산을 거부한다면 커다란 효과를 낼 것이다.

무엇보다 원청사인 현대·기아차지부의 연대가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김성락 지부장은 5일 갑을오토텍 집회에 참가한 대의원들에게 "휴가 이후 이 투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현대·기아차지부가 부품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생산 속도를 최대한 늦춘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와 사측이 경찰·용역을 배치해 호시탐탐 침탈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완성차지부의 연대 파업이 절실하다. 지금 계획되고 있는 8월 12일 현대·기아차 그룹사 파업을 앞당겨야 한다. 갑을오토텍 공장으로 전 조합원들을 집결시켜야 한다.

부품사 노조들이 공격을 당해 하나둘 무너지면 현대·기아차 노동자들도 조건 후퇴 압박을 받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정부와 사용

자들이 대기업 노조를 표적 삼아 임금 피크제·임금체계 개편 등 공격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부품사 노조들에 대한 공격을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기층 활동가들이 연대 조직을 위해 적극 나서자. 충남의 금속노조 조합원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여러 부문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휴가 기간에 갑을오토텍 공장 사수에 동참했다. 현대차 전주위원회는 부품 전수조사로 연대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8월 5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에는 공장 인파로 1천여 명이 모여 투쟁을 결의했다.

8월 9일 금속노조 중집을 앞두고 연대 파업을 호소하는 대의원·활동가들의 연서에도 많은 투사들이 동참했다. 특히 현대기아차 정규직·비정규직 활동가들 사이에 호응이 컸다.

기층 활동가들이 적극 나서면 더 광범한 연대를 건설할 수 있다. 투쟁기금을 모으고, 지원 물품을 보내고, 지지방문을 조직하고, 연대 집회에 참가하고, 연대 파업을 촉구하며 투쟁을 조직하자.

기아차 상반기 당기순이익 1초 7천억! 3년간 최대

임금체계 개악 저지! 통상임금·8+8 쟁취!

단호한 투쟁으로 쟁취하자

현대·기아차 사측이 올 초부터 임금 동결, 임금체계 개악,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하며 만만찮게 우리를 압박해 들어오고 있다. 저들은 경제 위기와 세계적 경쟁 격화를 이유로 우리를 쥐어짜려 한다.

이미 2013년 말부터 통상임금 문제가 불거지고 이듬해 초 사측이 '전 그룹사에서 호봉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을 때부터 공격은 시작됐다. 우리의 조직력 때문에 저들이 일방적으로 관철하지는 못했지만, 통상임금 요구는 풀리지 않고 있고 신입사원 이중임금제 등이 야금야금 추진됐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기아차 당기순이익은 1초 7천억 원이나 된다! 3년간 최대 수치다. 정몽구가 챙긴 주식 배당금만 7백70억 원이고, 사내유보금은 1백13조 원이나 된다. 공간에 돈을 쌓아둔 탐욕스런 자들이 우리더러 "기득



권", "귀족" 운운하며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사측은 청년 일자리를 위해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다지만, 정몽구와 정의선이 사재를 출현해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때도 박근혜는 이 같은 논리를 댔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이었다. 저들은 일자리를 늘리는 커녕, 오히려 신규채용 규모를 줄

이고 심지어 기존 정원까지 줄이고 있다.

'복잡한 임금구조를 개선하려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 이는 낮은 기본급과 복잡한 수당체계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을 이용해 성과연봉제를 관철하려는 것일 뿐이다.

사측은 올해 강고하게 공격을 밀어붙일 태세다. 박근혜가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공공부문에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은 정몽구의 공격에 탄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쟁의 찬반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로 파업을 가결시키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와 집권당의 피 터지는 내분과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다. 이를 비집고 곳곳에서 투쟁도 벌어지고 있다. 이럴 때 임금을 지키고 통상임금·8+8 쟁취를 위한 투쟁을 발전시켜야 한다.

▶ 뒷면에서 이어짐

노조파괴 시도는 왜 벌어지는가

갑을오토텍 투쟁은 극악한 방식으로 노동개악을 관철하려는 데 맞선 저항이다. 갑을자본이 민주노조 파괴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 확대, 현장 통제 등 착취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의 노동개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갑을오토텍은 이미 2013년 통상임금 소송이 불거졌을 때부터 정재계와 노동계 모두의 이목을 끌었다. 박근혜 정부는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재판을 넘기고, 통상임금 억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악에 착수했다.

갑을오토텍은 지난 수년간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를 늘리며 성장했다. 지난해 일본과 인도와 중동에 수출을 늘렸다.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기업들만이 아니라 주요 부품

사들도 글로벌 시장에 깊숙이 편입돼 있다. 그만큼 더 치열한 경쟁에 노출돼 있다는 뜻이다. 이 속에서 기업주들은 더 적은 비용으로 시장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해졌다.

2010년 이래 자동차 부품사들에서 악랄한 복수노조 탄압이 잇따른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였다.

인건비 절감을 바라는 사측에게는 갑을오토텍이 '비정규직 없는 공장'이라는 점도 불만거리다. 갑을오토텍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90퍼센트 이상이 정규직인 '모범'적인 공장이다.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확대를 막아 왔기 때문이다. 사측은 지난 몇 년간 식당, 경비 등의 외주화를 시도했지만 노조의 반발로 좌절을 겪었다.

정부와 사용자들이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와 조건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이에 맞서 저항하는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방어해야 한다.

잇따른 노조파괴 공격들

- 2010년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KEC
- 2011년 유성기업
- 2012년 만도, 에스제이엠
- ※ 금속노조 70여개 사업장 복수노조 설립
- 2014년 갑을오토텍 용병 투입 ⇨ 7일 전면파업으로 노조 승리
- 2016년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시도 ⇨ 공장 점거파업 중



노동개악 관철

- 임금 삭감, 복지 축소 / 비정규직·외주화 확대
- 온갖 단협 개악 / 현장 통제 대폭 강화
- 복수노조로 차별 고착화 / 노조 활동 감시·통제



노동자 정치 신문

"민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 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wspaper.org

<노동자 연대>를 함께 읽고 토론합시다!

<노동자 연대>는 곳곳의 주요 노동자 투쟁 소식과 운동의 전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동자 연대>를 읽고 토론할 동지들을 기다립니다. 연락 주십시오.

문의 : 김우용(010-3092-9003)